

# ITU-T TSAG 및 RevCom 국제회의



**박기식** ETRI 책임연구원  
 RevCom Vice-Chairman(아-태지역 대표)  
 TSAG & RevCom 한국 수석대표

**이상호** TTA 통신융합부 선임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연구단 총괄 간사

## 1. 머리말

ITU-T TSAG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ITU-T A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sup>1)</sup>)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RevCom(Review Committee)은 2012년 WTSA(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의 주요 결과로 설립되어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차원의 ITU-T의 연구반 구조 및 작업 방법의 검토, 타 표준

개발기구와의 공조 및 협력 메커니즘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sup>2)</sup>

본 고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상호 연계하여 개최된 ITU-T TSAG 및 RevCom 회의의 핵심 이슈 및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ITU-T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지난 6월 개최된 TSAG 국제회의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총 41개국 141명의 회원국

1) work programme: A list of work items\* that are owned by a study group.(ITU-T 권고 A.1, 1.8.2.11에 따른 정의)

\*work item: An assigned piece of work, which is identifiable with a Question and which has specific or general objectives, which will result in a product, usually a Recommendation, for publication by ITU-T.(ITU-T 권고 A.1, 1.8.2.10에 따른 정의)

2) Review Committee의 작업범위(Terms of Reference)에 대해서는 WTSA-12 결의(Resolution) 제82호 Annex A 참조

및 기관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ETRI 박기식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TSAG 회의는 회의 기간 동안 TSAG 산하의 라포처 그룹은 물론 RevCom 회의에 참가자들이 연계 참가가 가능토록 일정이 구성되었다. 이는 TSAG과 RevCom의 회의 의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한 지난 WTS-12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1.1 ITU-T 권고(Recommendation) A.4 및 A.6의 병합논의  
2014년 1월 개최된 TSAG ‘협력강화’ 라포처 그룹<sup>3)</sup> 회의에서는, A.4 및 A.6 상에 규정되어 있는 ‘포럼·컨소시엄’ 및 ‘국가 및 지역 표준개발기구’와 ITU-T 간의 협력 및 정보 교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두 권고안의 병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6월 회의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프랑스 (Orange) 및 캐나다 등은 기본적으로 두 권고의 병합에 찬성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은 A.4 및 A.6 두 권고를 현재 병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는 등 병합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A.4 및 A.6 권고의 생성 배경, 목적 등이 다르므로 SDO와 포럼·컨소시엄은 구분되어 해당 기구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양자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및 아프리카 지역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본 논의에 대해 TSAG Closing Plenary에서는 ITU-T 각 연구반에 ITU-T 권고 A.4, A.5<sup>4)</sup>, A.6의

검토와 관련된 기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2015년 1월까지)하였으며, 동시에 ITU-T 회원국들에게도 ① ITU-T 권고 A.4와 A.6의 병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 ② ITU-T 권고 A.4, A.6의 SDO 및 포럼의 자격 기준에 관한 초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잠정 마무리되었다. 본 이슈는 내년도 TSAG 회의 개최 전에 세 차례에 걸친 TSAG ‘협력강화’ 라포처 그룹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1.2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번 TSAG 회의에서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슈 중의 하나는 침해금지가처분(injunction) 등을 포함한 IPR 관련 사항이었다. 이는 ITU-T 국장 직속의 ITU-T IPR AHG(Ad Hoc Group)에서 TSAG에 보고한 사항<sup>5)</sup> 중 미합의된 사항들, 즉 RAND 조건에서 Reasonable의 의미, 침해금지 가처분(Injunction)을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중국, 캐나다 등은 본 사안은 IPR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므로 TSAG에서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IPR AHG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불가리아 등은 본 논의가 2012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IPR AHG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사안이므로 TSAG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의 의견은 다수 회원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TSAG은 결국

3) TSAG Rapporteur Group on Strengthening Collaboration

4) ITU-T 권고 A.4 및 A.6뿐 아니라, A.5에 대하여도 함께 의견을 받기로 함(A.5: ITU-T 권고에서 다른 기구의 문서를 참조·인용하기 위한 일반절차)

5) ① RAND 선언에 따른 특허권자 및 특허허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의 Transfer, ② RAND에서 Reasonable의 의미, ③ Injunction(침해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④ Non-discriminatory(비차별)의 범위

본 사안을 IPR AHG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TSAG은 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고, IPR AHG에 input 문서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TSAG 회의에는 IPR AHG에서 합의된 사항만 보고될 예정이다.

### 2.1.3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신설 등<sup>6)</sup>

이번 회의를 통해 ITU-T에 FG AC(Aviation applications of Cloud computing for flight data monitoring) 및 FG DFS(Digital Financial Services) 등 2개의 FG가 신설되었다.

FG AC 신설은 말레이시아가 제안하였으며 2014년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ITU-T가 실시간 항공 정보에 대한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길 요청했다. FG DFS는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 제안한 사안으로 개도국 약 25억 명이 정식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 경제·사회 개발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도국 및 선진국에 digital payment platform을 활용하는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한 FG의 신설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두 제안은 이번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설립이 승인되었다.

상기 논의 이외에도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 ITU 전권회의(PP-14)'에 제출할 '2016~2019년 ITU 전략계획' 초안(전권회의 결의 71호)의 내용 중 ITU-T의 목표(objective)에 '표준 화격차 해소(Bridging Standardization Gap)' 추가 제안 관련 논의, ITU-T와 외부 표준기관 간 협력의

모델로서 Collaboration on ITS Communication Standards(CITS)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ISO 및 IEC와의 정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작업을 다루고 있는 ITU-T 권고 A.23 Annex A의 개정안 승인 등이 기타 주요사항으로 논의되었다.

## 2.2 ITU-T Review Committee(검토위원회)

TSAG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제3차 Review Committee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총 20개국 58명의 회원국 및 기관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ETRI 박기식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2.2.1 ITU-T 연구반 구조조정

2014년 1월 Review Committee에서 ITU-T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를 위해 RevCom 'ITU-T 구조조정(Restructuring)' 라포치 그룹<sup>7)</sup>이 신설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라포치 그룹의 작업범위(ToR) 내용 중 하나인 'ITU-T 구조조정을 위한 원칙 및 메커니즘 인식'에 대한 의견을 기고서로 제출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Review Committee는 각국이 제안하였던 원칙을 통합하여 향후 ITU-T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high-level principle로써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 라포치 그룹에서 현행 ITU-T 구조상 FG, JCA 및 연구반(SG)을 활용하여 ITU-T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회원국의 기고서 제출을 요청하며 향후 접수되는 기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6) 즉각적인 ICT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 절차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며, ITU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활동을 허용함

7) RevCom Rapporteur Group on ITU-T Restructuring

## 2.2.2 Review Committee Questionnaire(설문) 응답 내용 검토 등

이번 회의에서는 ITU-T 구조 등 개선을 위해 Review Committee에서 Circular-87(회람기간: 2014년 3월 3일~5월 5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 항목 6개에 대한 응답내용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Review Committee가 설문문에 대한 응답내용만을 가지고 ITU-T 연구반 구조 조정을 논의해서는 안되며, 단지 이러한 자료들은 ITU-T의 구조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ITU-T 내부 구조 조정과 관련된 설문내용(1번~3번)에 대한 응답사항은 Review Committee 'ITU-T 구조조정' 라포처 그룹에서 상세 논의하기로 하였고, ITU-T 외부의 협력과 관련된 설문내용(4번~6번) 응답사항은 TSAG '협력강화' 라포처 그룹에 L/S(연락문서)로 보내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설문내용 검토와는 별개로, 이번 회의에서는 ITU-T 외부의 표준개발기구(SDO)에 송부할 설문(External Questionnaire)의 초안도 검토하였으나, 외부 SDO에 송부할 설문 초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ITU-T 각 연구반의 활동, Question Level, 라포처 활동 등을 검토하였으며, 차기 회의 전까지 각 연구반별로 연구과제 중복 회피를 위하여 Question 구조 및 현행 구조에 대한 action item을 발굴하여 보고토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Review Committee는 ISO/IEC JTC 1과의 연락 및 상호교류 현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 3. 맺음말

이번 TSAG 및 RevCom에서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ITU-T와 외부 표준기관과의 협력방법을 다루고 있는 A.4 및 A.6 권고 병합(TSAG) 및 ITU-T 연구반의 구조조정(Review Committee) 이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표준화 환경에서 수많은 표준 기구들과 ITU-T와의 협력 및 정보교류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일과,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 및 시장 수요에 따른 표준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ITU-T 연구반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ITU-T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 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 ITU-T SG 구조조정에 관해서 차기 WTSA-16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칙들은 물론, 최종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원칙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향후 ITU-T 표준화 활동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주요한 이슈들과 더불어 다음 회기에 ITU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원칙 설정에서 최종 조직구조 개편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차기 회의도 TSAG과 RevCom을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TSAG(협력강화 라포처 그룹)은 201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RevCom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튀니지(세부 장소는 추후 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